



글 김규나

임유이 그림

### 성장소설 최초의 당선

〈2〉트러스트미 재단에 사인하셨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정하운은 내가 묻지도 않은 질문의 답을 했다. “저희 TM재단에 모든 정보를 양도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정하운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파일을 열었다. 나는 그녀가 내민 서류 몇 장을 받아 들었다. 사고 후 지하철 공사 측에서 추천한 심리상담센터에 찾아갔을 때 서류마다 의무적으로 몇 번 서명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 의식하지 못했던 데 상담센터 이름 아래, ‘TRUST ME’라는 직인이 보였다.

냉담함을 가장하고는 있었지만 바닥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심리상담사 앞에서 동의를 꼼꼼하게 읽을 정신상태가 아니었다. 하긴 언제 한번 동의를 제대로 읽고 서명한 적 있겠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

되지 않는 초능력과 같은, 과학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현상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상에 엉덩이를 기대고 서서 정하운이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나는 이해의 영역 밖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지만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마음의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단의 활동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과 가시적 현상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약물이나 수술 없이 마음 에너지로 질병이 치료되는 케이스를 수집하는 것도 재단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손들고 물어보세요, 하고 기다리는 선생님처럼 정하운이 나를 쳐다보았다. 카페인에 내 마음을 이성적으로 돌려놓는 것 같았다. 해적 안대의 마법도 힘을 발휘하는 것인지 나



로 좋은 싫든 담당 직원이 짙어 주는데로 형광펜이 칠해진 곳마다 이름을 적을 뿐이다. “현대 의학과 과학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 많습니다.” 정하운이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가해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둘로 나뉘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철저히 무신론자가 됩니다. 재단은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유수한 과학자와 저명한 의사, 학자들은 물론 정치·경제·예술 등 각 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트러스트 미 재단의 회원이지요. 우리는 우주가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마음, 즉 생명의 본성에 의해 생성·변화·발전된다고 믿어요. 물론 미신이나 검증

는 차츰 냉정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적출하라고 했습니다.”

우주나 과학보다는 나에게 밀착된 화제가 필요했다. 정하운이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양손을 팔짱 끼고 냉정한 판사처럼 내게 최후의 형을 선고했다.

“적출해도 6개월 안에 사망할 겁니다.”

흠! 나는 숨 쉬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정하운을 노려보았다. 시력을 잃은 채로는 살고 싶지 않고 했던 마음은 거짓이었다. 지난밤 자살 시도까지 했던 절망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6개월 후 죽는다는 선언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자주 인용되는 시한부 기간이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 나도 절박하게 살고 싶어졌다.



1993년 8월 싱가포르 공연 당시 마이클 잭슨.



1985년작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다큐에 등장하는 마이클 잭슨.

넷플릭스

## 마이클 잭슨 죽어서도 ‘팝의 황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고인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팝의 황제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니뮤직이 마이클 잭슨 재단이 보유한 저작권의 절반을 6억 달러(약 8000억 원)에 인수했다. 최근 빌보드지를 비롯한 해외 매체들이 이와 같은 거래 사실을 밝혔다.

음악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단일 아티스트의 저작권 자산 중 가장 큰 거래로 현재 시장 가치가 약 12억 달러에서 최대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거래는 마이클 잭슨이 보유한 출판 및 저작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만 인수한 것으로 ‘비트잇(Beat it)’과 ‘배드(Bad)’와 같은 히트곡들이 포함됐으며 마이클 잭슨의 개인 음반사인 마이잭 뮤직(Mijac Music)이 보유한 다른 가수의 저작권 자산도 포함됐다. 마이클 잭슨의

재단 보유 저작권 절반 소년에 8000억 원에 팔아  
단일 아티스트 저작권 거래 중 역대 최고가 기록

음반은 역사상 수익성이 가장 높은 앨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982년 발매한 ‘스릴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다.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마이클 잭슨의 저작권 수익이 매년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빌보드는 7500만 달러 추정치 내에서 잭슨의 음반 및 출판 자산으로만 47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마이잭뮤직에서 매년 500만~8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추정치에는 음악 스트리밍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주인공에 고인의 조카이자 가수인 자매 잭슨(왼쪽)이 낙점됐다.

장으로 37%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마이클의 음악을 온라인에서 재생한 건 수는 65억 건으로 2021년 47억 건보다 3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 개봉으로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상품 출시와 이에 관련된 저작권 수익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분 계약에는 마이클 잭슨을 주제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기타 연극 작품의 로열티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니뮤직은 유니버설뮤직과 워너뮤직에 이은 세계 3위의 음반사로 마이클 잭슨과는 오랜 협력 관계를 가져 왔다. 잭슨이 1985년 ATV 뮤직 퍼블리싱을 인수한 뒤 1995년 소니가 ATV의 지분 절반을 인수한 바 있다.

업재만 기자 jmeom@skyedaily.com

## 인형극으로 아이들 감염병 예방

서초구 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교육

서울 서초구청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하면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인형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형극으로 다양한 인형들이 등장해 외출 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과 건강한 신체활동 그리고 편식 없는 건강한 식생활 등을 재미있게 알려 준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재참여 의향이 100%로 나타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이라며

“환절기를 맞아 감염병 노출 위험도 커지기에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54곳이 신청서를 냈고 이 가운데 36곳을 선정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감염병 예방 인형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인형극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재만 기자 jmeom@skyedaily.com



지난해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인형극’ 교육.

서초구



희망을 꽃피우는 아이가

## 너였으면 좋겠어

모든 아이들에게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는 아이로 기르는 인성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후원문의 1577-9572

